

생활의..지혜.

i d e a



생활 속 유용한 지혜! 직접 실험해보자!

전자레인지에 돌려만드는 과일잼!

속이 깊은 용기에 과일과 과일의 3~4배 정도 되는 설탕, 레몬즙을 넣고 섞으세요. 과일은 깨끗이 씻어 통째로 넣으면 돼요. 전자레인지에 용기를 넣고 그대로 가열하면 바로 잼이 완성된답니다.

- 김나영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 실험해봤더니... 성공률 100%, 실용성 100%

사과 1개를 껍질을 벗기고 씨를 도려낸 뒤 위의 방법으로 그릇에 설탕, 레몬즙과 함께 넣고 전자레인지에 가열했다. 몇분을 돌려야 할지 몰라서 넉넉잡아 30분을 설정해놓았는데 10분 정도가 되니 과일이 물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꺼낸 뒤 녹은 설탕과 푹 무른 사과, 빠져나온 수분을 고루 섞었더니 정말 사과잼이 되었다. 잼을 만들려면 은근한 불에서 익히는 내내 냄비에 늘어붙지 않게 주걱으로 저어줘야 했는데,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니 너무 간편해서 대만족!

보온병에서 나는 냄새, 식초로 없애기

냄새나는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우고 식초 1큰술을 떨어뜨려보세요. 몇 번 흔든 다음 하룻밤 정도 두었다가 행구면 특유의 냄새가 말끔히 사라진답니다.

- 김은숙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 실험해봤더니... 성공률 100%, 실용성 100%

날이 추워져 보온병을 꺼냈는데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인지 좋지 않은 냄새가 났다. 위의 방법대로 보온병에 식초 1큰술과 뜨거운 물을 채운 뒤 하룻밤 두었다 행궜더니 냄새가 감쪽같이 없어졌다. 뜨거운 물로 3~4번 씻어내도 없어지지 않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대만족!

비닐봉지 이용해 화초에 물주기

집을 몇일간 비우게 될 때는 화초관리가 걱정되죠?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닐봉지에 물을 담고 새지 않게 입구를 꼬꽂 묶은 뒤, 아주 가는 바늘로 비닐봉지에 작은 구멍을 하나만 뚫으세요. 그리고 화초가 담긴 화분 위에 비닐봉지를 올려놓으면 돼요. 집을 비우는 기간이 길수록 구멍을 작게 뚫으면 된답니다.



- 박은영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실험해봤더니... 성공률 95%, 실용성 95%

위의 방법대로 비닐봉지에 물을 담고 꼬꽂 묶어 작은 구멍을 뚫은 뒤 화분을 올려두었다. 3일이 지난 후 화분을 보았는데, 흙이 여전히 촉촉했다. 이는 구멍으로 물이 소량씩 나오기 때문인 듯. 화분에 물주는 것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나 혹은 집을 오래 비울 때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변기청소용 솔, 락스에 담가 세척하기

변기청소용 솔은 사용후 어떻게 씻어야 할지 난감하죠. 변기청소용 솔을 받치는 컵 모양의 받침대에 락스를 소량 부어넣으세요. 그러면 평상시 솔에서 나는 괴로운 냄새도 줄일 수 있고, 담가놓았던 그대로 사용하면 변기를 좀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 이종미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 실험해봤더니... 성공률 90%, 실용성 90%

청소용 솔은 씻을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특히 머리카락이 끼 있거나 하면 장갑을 끼고 나무젓가락으로 빼어낸 뒤 뜨거운 물로 씻어내곤 했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씻기지 않아 고역이었다. 우리 집 솔받침대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라, 안쓰는 컵에 락스를 약간 붓고 솔을 꽂아두었다. 다음날 꺼냈더니 락스 냄새 때문에(락스는 아주 소량 넣었기 때문에 락스 냄새가 심하지는 않았다) 괴로운 냄새가 나지 않아 좋았고, 락스에 넣어두었던 청소솔은 뜨거운 물로 한번만 씻어내었는데 머리카락도 쉽게 풀어져 씻겨 나갔다.